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경제구조의 확립은 경제강국건설의 중요요구

손영석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창설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첨단기술산업은 지식경제의 기둥입니다.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과 같은 첨단기술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설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추적역할을 높여나가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8페이지)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첨단기술산업은 지식경제의 기둥이다.

첨단기술산업이 지식경제의 기둥이라는것은 첨단기술산업이 지식경제의 기본부문, 주력산업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첨단기술산업이 지식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며 첨단기술산업의 힘에 떠받들려 지식경제가 발전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이 지식경제강국인것만큼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하는것은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경제구조의 확립이 경제강국건설의 중요요구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이 첨단과학기술을 기술적기초로 하고 첨단기술산업을 위주로 하는 지식경제강국이기때문이다.

경제구조는 경제부문들사이의 호상관계의 체계 즉 경제를 이루고있는 내부부문들의 구성과 그것들사이의 생산적관계, 균형관계를 통털어 표현하는 개념이다. 공업을 비롯한 경제구성부문들과 그것들사이의 호상관계를 반영하는 경제구조는 경제의 자립성정도와 국가경제력상태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경제구조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간다. 사회경제제도와 과학기술의 발전, 자연부원의 상태, 대외경제적환경, 정치군사정세, 경제전략 등에 의하여 경제구조는 변화된다.

단순협업의 시대로부터 지식경제시대에 이르는 오랜 기간 경제구조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왔다. 마누팍뚜라시대에는 수공업적기술에 기초한 농업이 경제구조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계제산업시대에는 기계기술에 기초한 공업이 경제구조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식경제시대에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정보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이 경제구조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한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며 이러한 시대에 존재하는 경제는 마땅히 첨단기술산업을 위주로 하는 경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지식경제시대에 경제강국을 건설하는것만큼 우리의 경제강국은 응당 지식경제시대의 체모에 맞는 경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첨단기술을 기술적기초로 하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나라이다. 경제강국은 단순한 과학기술을 기술적기초로 하는것이 아니라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첨단기술을 과학기술적기초로 하고있는 경제강국이다. 첨단기술은 개별적학문의 개개의 기술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 기능측면에서 가장 앞선 종합적이며 산업적인 가치를 가지는 기술이다. 지식경제강국은 이러한 첨단기술을 기술적기초로 하는 경제강국이다.

지식경제시대를 대표하는 산업은 첨단기술산업이다.

첨단기술산업이 경제구조에서 기본을 이룰 때 지식경제강국의 경제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지식경제강국의 경제구조라고 하여 첨단기술산업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것은 아니며 지식경제강국에도 지금까지 존재해오던 기존산업이 남아있게 된다. 지식경제강국의 경제구조를 형성한다고 할 때 그것은 첨단기술산업을 창설할뿐아니라 기존산업을 폐쇄하거나 없애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산업수준으로 전환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지식경제강국은 기존산업에 비하여 첨단기술산업이 경제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강국이다. 오늘 세계적으로 국민총생산액에서 첨단기술산업의 생산액이 50%이상을 차지하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제구조가 형성된것으로 평가하고있다.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경제구조의 확립이 경제강국건설의 중요요구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지식경제시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목표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 구조적담보이기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목표는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는것이다.

기계제산업시대에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중공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한것으로 하여 해당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지표도 주로 인구 한사람당 강재, 전력, 석탄, 세멘트, 화학비료 등의 생산량 지표로 규정하여왔다. 기계제산업시대에는 중공업에 의하여 다른 모든 부문들의 발전이 좌우되었으며 중공업의 발전이 없이는 다른 경제부문들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었다. 따라서 경제구조도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위주의 경제구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지식경제시대에는 정보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한다.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은 새로 출현한 신흥산업으로서 오늘날 지식경제시대를 대표하는 산업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연구개발비용이 산업총생산액의 10%이상을 차지하거나 취업자수에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수가 10%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을 첨단기술산업으로, 기업에서 전문기술인원의 비중이 40%이상이고 연구개발비용이 판매수입액의 5~15%를 차지할 때 이러한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보고있다.

첨단기술산업은 첨단과학기술을 리용하여 발전하는 산업으로서 그의 본질적특징은 산업의 지식집약정도가 다른 산업들에 비하여 훨씬 높은것이다.

첨단기술산업은 새 기술에 대한 기술경제적요구수준이 훨씬 높으며 제품생산액 가운데서 연구개발비와 새 제품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뿐아니라 전체 종업원수에서 과학연구사업에 종사하는 성원수의 비율이 높은 산업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첨단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빨리 발전하며 생산장성에서 과학기술의 기여률이 훨씬 높은 지식경제강국이다.

지식경제강국에서는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경제가 주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보장된다. 과학의 선도적역할에 의하여 생산이 발전하고 과학연구개발이 생산의 선행공정으로 된다. 생산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과학기술의 기여률이 비상이 높아진다.

오늘 세계적으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자면 생산장성에서 과학기술의 기여률이 80%정도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보고있다.

자원의 제한이 없는 지식자원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경제가 발전하면 자연자원의 고갈로 하여 경제발전이 제한받는 현상이 극복되어 경제가 지속적으로 빨리 발전할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지식과 과학기술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의 빠른 발전은 선진적인 사회제도,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을 사회적조건으로 한다.

지식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빨리 발전하는것은 지식경제강국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이며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조건이다.

쇠퇴와 위기를 모르고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발전속도를 보장하는것이 흥하는 경제로서 지식경제강국의 표징으로 된다. 경제의 지속적인 빠른 발전은 생산장성의 항구적인 예비와 있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담보된다. 사회주의경제강국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 있는 생산장성의 항구적인 예비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되어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지식경제강국에서는 생산의 지속적인 빠른 발전이 주로 과학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생산발전에서 지식의 역할이자 과학기술의 역할이며 지식과 과학기술에 의하여 경제가 빨리 발전하는것이 지식경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높은 생산장성률은 경제강국의 발현형태이며 생산장성에서 과학기술의 몫의 증대는 지식경제의 발현형태이다. 생산장성에서 과학기술의 몫이 높다는것은 생산물용량구조에서 과학용량이 차지하는 몫이 크다는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높은 생산장성률과 생산물의 과학용량의 증대가 결합된것이 지식경제강국의 발현형태이다.

생산의 지속적인 빠른 장성과 생산물의 과학용량의 증대는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생산물의 과학용량이 크다는것은 생산이 주로 과학기술에 의하여 발전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지식자원, 과학기술은 고갈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생산자원이며 생산장성의 다른 요인에 비하여 그의 생산적효과는 곱하기효과, 지수효과로 나타난다. 이것은 지식자원, 과학기술에 의거할 때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그의 지속적발전이 보장된다는것을 말한다. 생산물용량구조에서 과학용량이 큰 제품일수록 생산이 지속적으로 빨리 발전할수 있고 그것이 지식경제강국의 중요한 발현형태의 하나이다.

지식경제시대에는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것만큼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면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할수 있도록 구조적

담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담보는 첨단기술산업을 위주로 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할 때 보장된다. 경제구조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여야 경제발전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첨단기술산업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질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이 첨단기술에 기초하고 첨단기술산업을 위주로 하는 지식경제강국이며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경제강국인 것만큼 그러한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면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 땅위에 인민의 리상과 꿈이 찬란한 현실로 꽃피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첨단기술산업, 기둥